

도카시키

거대한 숲을 행진

좁은 임도를 올라가 도카시키에서 아하렌까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내려온다

경로: 도카시키 마을 - 아하렌 마을

거리: 9km

소요 시간: 2 시간 45 분

난이도: 어려움

개요

도카시키 마을에서 아하렌까지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도로인 손도 아하렌선을 지나는 경로와 도카시키 임도와 구비리바루 임도의 두 임도를 조합하는 경로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임도 아하렌선보다 훨씬 길이 좁고 교통량이 적은 임도를 추천합니다.

상세 내용

꽤 긴 여정이므로 스테이지별로 소개합니다.

스테이지 1 : 3 km

이 스테이지에서는 도카시키 마을에서 도카시키 임도가 구비리바루 임도와 교차하는 지점으로 향합니다. 이 스테이지는 도중에 있는 두 전망대를 기준으로 거의 같은 거리의 3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 1.5km 를 나아가면 항구가 보이는 언덕 전망대에 도착해 도카시키를 뒤돌아보는 멋진 경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으면 고속정과 배가 입항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1km 못 미치는 거리를 더 가면 구스쿠(오키나와 말로 성(城))가 있는 섬들, 마에지마 섬,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오키나와 본섬이 바라다보이는 알란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다시 750m 를 가면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도착합니다. 분기점의 왼쪽인 구비리바루 임도로 가보세요(지쳤을 때는 대신 오른쪽 길에서 도카시키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도카시키를 여기에서 약 2.7km. 도보로 40 분입니다).

스테이지 2 : 4.8km

다음 목표는 구비리바루 임도와 손도 마에타케선의 교차점입니다. 이 구간의 길이는 6.5km 로서 해발은 200m 에까지 이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꼬불꼬불한 길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훑길훑길 보이는 변화무쌍한 게라마 블루와 하늘의 상호 작용, 그리고 섬의 남쪽 끝에 있는 아하렌미사키곶이 살짝 보입니다. 겨울에는 쌍안경을 갖고 오기를

추천합니다.

스테이지 3 : 1.1km

손도 마에타케선과의 교차점에 도착하면 우회전해서 표지를 따라 아하렌으로 향하세요.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은 아하렌 해변과 그 건너편에 펼쳐진 게라마 블루의 광경입니다. 내리막길의 소요 시간은 20 분 이하입니다. 도카시키까지는 버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SUGGESTED PHOTO(S)

1. Picture of Forest Road
2. Port View Viewpoint
3. Aran Viewpoint
4. crossroads with Kuburihara Rindo sign
5. View from Kuburihara Rindo
7. Junction with Sondo Maetake Road
8. View to Aharen & Aharen Beach
9. Bus(?)